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혜문 스님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

그는 분명히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8년 2월, 국보 1호 송례문이 무너지던 날이었다. 송례문 방화범 채종기란 할아버지는 왜 송례문을 불질렀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무현이 조금밖에 보상해 주지 않아서 화가나 송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목소리 높여 말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 사람들은 축구에서 저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고, 연예인이 이혼해도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던 시절이었다.

그 뒤로 5년이 흐른 2013년, 송례문은 준공 후 수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이 갈라지는 등 부실 복원 논란에 휘말렸다. 일본산 화학안료를 쓰고, 달 건조된 나무를 사용했으며,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느라 부

송례문 앞에서 노무현을 생각한다

실복원이 되었다는 갖가지 주장이 거중되었다. 문화재청장은 국보 1호의 부실복원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와 오류 시정을 약속했지만, 책임을 지고 결국 중도하차해야만 했다.

그런데 송례문은 무슨 이유로 국보 1호가 되었던 것일까? 송례문이 국보 1호가 된 이유는 일본의 조선강점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송례문은 1907년 당시 조선에 주둔했던 하세가와 사령관이 서울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리게 될 운명에 처한 적이 있었다. 소식을 들은 당시 일본인 거류민단장은 하세가와를 면담, 송례문의 존치를 설득했다고 한다.

“송례문은 가토 기요마사(가토정정)가 한양에 출임했던 문입니다. 지금 한양에 남아 있는 유적들 중에 임진왜란 당시의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송례문을 철거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송례문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은 일제시기 내내 여기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컨대 1927년 발행된 ‘취미의 조선여행(趣味の朝鮮の旅)’ 책자에서는 송례문에 대해, 그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정벌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남대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동대문을

통해 경성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남대문이 이 남대문이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총독부가 송례문을 1호로 지정 한 중요한 이유였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일제의 지정번호를 그대로 답습 송례문을 국보 1호로 다시 지정했고, 별다른 논의 없이 오늘에 이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송례문이 국보 1호란 사실이 못마땅했던 듯 싶다. 그래서 송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2005년 감사원은 국보 1호 송례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락, 국보 1호를 변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뒤편에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보 1호의 변경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보 1호는 중요성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지정번호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국보 1호 변경계획을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2008년 송례문이 소실되었을 때에도, 송례문 국보 해지 문제가 거론되었다. 조선시대 건축한 목조 부분이 모두 소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국보 1호가 갖는 상징성과 전소하지 않고 석축부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국보 1호로의 존치를 고집했다.

송례문 복원과정에서 관리번호에 지나지 않는다면 국보 1호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복원기간 내내 문화재청은 전수가 끊어진 전통기술로 국보 1호의 복원에 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전통기술에 대한 무리한 집착은 결국 송례문 복원을 전통기술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이제 송례문은 더욱 심한 흥역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화재로 원형을 훼손당하고, 2013년 부실 복원으로 신뢰를 잃은 송례문은 곧 국보 1호의 해지 논란에 휘말릴 듯하다. 그러나 노무현이 가고 없는 지금 누가 또다시 국보 1호 송례문을 정면 조건,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입성 기념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국보 1호는 과연 언제까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송례문 앞에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

의료칼럼

아가씨의 늘어진 뺨살



이호영
2030미라인외과 원장

최근 피부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게 된 것은 바로 2년전 날씬해지기 위해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한 뒤, 후유증으로 모든 피부가 처져버린 탓이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초가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도 한번 처져 버린 피부는 탄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때 90kg까지 나갔던 박양은 살을 빼야겠다는 결심을 한 뒤, 살을 뺄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단 6개월 만에 무려 35kg이나 감량해 55kg의 날씬한 몸이 됐다. 살은 쫄 때도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무겁게 쪼는 거지만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붙어 자고나면 2~3kg 씩 무겁게 빠졌다고 한다. 날씬한 몸이 됐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후 박양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바로 살이 빠져서 날씬해 질줄 알았던 자신의 몸이 할머니처럼 주글주글 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피부가 광창되어서 잘 눈에 안 띠던 틈살도 살이 주그러드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심각성을 깨달은 박양은 다시 살을 찌우려고 노력했지만 한번 처진 피부가 다시 탄력이 붙지는 않았다.

다이어트가 실패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빠르게 살이 너무 잘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상당수다. 살은 아무리 급격하게 찌더라도 쫄 때는 조금씩, 특히 천천히 빠지도록 해야 한다. 그 래야 요요현상이나 피부 처짐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같은 고민으로 병원을 찾은 박씨에게 부위별 피부 지방 성형술을 권유했다. 피부 지방 성형술은 뺨살이나 허벅지 등 늘어진 부위의 피부와 지방을 절제해 내고 몸에서 남은 지방을 채취해 주름지거나 울퉁 패인 부위에 채워넣는 방식으로, 두꺼운 지방과 늘어진 피부를 함께 제거할 수 있고 몸의 지방을 균형있게 재배치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절제되는 피부의 양은 늘어진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서로 간에 많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크기의 피부를 디자인해서 절제하도록 해야한다. 이 수술의 원칙은 흉터를 최소화하며 가급적 눈에 띄지않는 곳에 남기도록 해야하고,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해야한다.

결국 박씨는 아랫배 부위를 손바닥 넓이 만큼 절제하고 치골 상부에서 봉합했으며, 엉덩이 위쪽 남은 지방을 채취해 배꼽 위 움푹 패인 곳에 넣어 주었다. 허벅지는 안쪽에 주름이 심한 부위를 위쪽으로 당겨 잘라내고 허벅지 안쪽 주름부위에서 봉합해 큰 흉터 없이 잘 마무리했다.

피부 절제는 국소마취로 가능하지만 보통 수면으로 하며 부위당 2~3시간이 소요되며, 허벅지 수술의 경우 3~4일 정도의 안정이 필요하나 그 외의 부위는 수술 다음날부터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해 처진 살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기고

깨끗한 도시의 DNA! ‘내 집 앞내가 쓸기’



이연
광주시 시민협력관

사소함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중요한 아이디어가 손실되므로 도시의 인접성, 친밀성, 혼합성이 인류 발전의 주요인이라고 했다. 이미 개인적으로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고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이용의 불편이나 소통할 이웃의 부재로 실버타운을 선호한다는 것을 들었기에 공감이 가는 주장이었다.

그래도 도시생활을 예찬하기에는 어딘지 뭔가 부족하다. 아직 따스한 인심의 시골생활 경험에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고 있어서인지 때때로 느끼는 도시의 삭막함이 도시의 답답을 덮어버리기도 한다. 가끔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그 예전 시골의 공동체적 삶을 가져올 수 없을까 고민해본다. 삭막한 도시에 따뜻한 숨을 불어 넣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행복한 광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을 추진하게 되면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되었다.

새마을회 주관으로 2012년 4월부터 시작한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은 광주 전역 95개 동에 117개 청결봉사대를 결성하여

주택골목길, 아파트 단장, 상가주변 등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청결봉사대 발대 2년차인 현재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직접자 등 봉사단체, 은행원, 자율방범·주부순찰대 등 자생단체, 노인 일자리사업단 등 돌 한 해 동안 2100여 회 3만10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범시민운동으로 정착되었다. 아직 일찍 청소를 나온 시민들의 표정은 활력이 넘친다. 한 분은 빗자루를 들고 한 분은 집계를, 또 한 분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웃으면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 뭉클하게 훈훈해 진다.

사람들이 깨끗한 도시를 말할 때 ‘싱가포르’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엄격한 법률의 힘이다. 아이러니하게 법규가 많은 나라일수록 법률위반이 많다. 이는 마음을 움직이기보다는 강제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 일 것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DNA! 미풍양속을 선진시민의식으로 배양할 수 있다면 강제적인 통제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다.

우리 시의 경우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출발한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이 지금은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시가 깨끗해졌음은 물론 청결 운동하는 장소는 이웃 간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대동단결의 역사를 가진 우리 광주이기에 법률과 강제력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확산 가능했다고 본다.

법정스님이 사랑한 책 50선에 장지오노 ‘나무를 심는 사람’이 들어 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양치기가 30년간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해,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해 심어온 나무가 황무지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고 물결기를 회복하여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나무를 심는 양치기의 선한 모습이 오버랩된다. 진정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꾸는 아름다운 시민들이고 진정한 도시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확실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하는 약 사용 줄여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비를 덜 낸다. 이것이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다. 다만 국민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이 확대되기 전에 예방치료를 할 경우 그만큼 병원치료를 줄일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은 튼실해 질 수 있다.

약화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만 건강보험 재정을 좁막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병원을 다니는 것이 외에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제비, 즉 약값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장난 아니라는 사실, 그제 OECD국가 평균의 두 곱이 넘는다고 한다.

다 늘어나는 수치라고 한다. 약제비 급증은 기본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다 약 처방량도 많고 약값도 비싸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질환 등 매일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들이 증가해 약제비 부담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 국민은 노인인데 젊은층이든 약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약

처방을 많이 할수록 제약사나 약국은 물론 병원 수입도 늘어나는 현재 구조가 문제라고 본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약값도 낮추어야겠지만 사용량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금같이 약값의 손실을 계속 겪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두고두고 부담이 되어 국민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社說

지방선거 수정안 아직도 ‘안갯속’이러니

내년 6·4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선거관은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안철수 신당 창당 시점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교육감 선거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몰릴뿐만 아니라. 또한 광역의회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에도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도 변수수 때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낯잡을 잡고 있는 상태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입지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입지자들의 몰방자업은 불·탈방 등 혼탁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물론 국정원 사건 등 대처 정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의 후폭풍과 후유증을 감안하면 여야 대립되는 별도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속히 천명해야 한다.

안 의원이 신당 창당 시기에 참여인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내년 선거가 ‘오리무중’이라는 데 있다. 입지자들에게 혼란과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 사건 등 대처 정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의 후폭풍과 후유증을 감안하면 여야 대립되는 별도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속히 천명해야 한다.

한빛 3호기 또 고장, 원전 믿을 수 있나

가동중인 한빛 원전 3호기(설비용량 100만kw)가 4일 오전 터닝발전기 고장으로 가동정지됐다. 원자로 제어봉 안 내관 균열로 정비를 거쳐 지난 6월 재가동된 지 6개월 만에 또 멈춰섰으니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다.

있는 셈이다. 4일 발생한 가동 정지를 포함해 이날 현재 전국 원전 23기 중 7기가 멈춰 선 상태여서 원전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 달이 멀다고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원전이 말뚝을 일으키는 형국이지만, 관련 당국의 대처는 임시방편에 그쳐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한빛 3호기 가동정지 소식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우선, 겨울철 전열기 사용증가로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동정지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빚지나 않을까하는 심리가 크다. 여기에다 원전주변 주민들은 흑시 모를 대형사고 가능성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수원 측에서는 한빛 3호기가 원자로 쪽 고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겨울에 들어서 난방을 전력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하는 수용가의 입장에서 원전 정지 소식은 못내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다.

요즘 고장을 일으킨 원전들은 오랜 기간 정비를 받고 재가동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멈춰 섰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한빛 3호기 정지는 지난달 28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58만kw급)가 멈춘 후 6일 만에 벗어난 악재다. 3호기 차질로 원전의 ‘릴레이 고장’이 멈추지 않고

는 구멍에 손을 넣고 땅콩을 움켜쥔다. 하지만 땅콩을 움켜쥔 그 손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예도 원송이는 땅콩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잡히게 된다고 한다. 상대에게 양보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無等鼓

쉬워 않고 달려온 2013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최근 송년회는 연말이 아닌 연초에 미리 하고 있어 벌써 1년의 정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다사다난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연초 계획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때문에 지난간 시간을 생각하면 기쁨보다는 후회와 탄탄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움켜쥔 그 나뭇가지에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 나뭇가지에 대한 집착을 지우라는 것이다.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 집착을 버리라는 이야기다.

‘지식은 채우는 것이고, 욕망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니 요동속에서는 실체를 볼 수 없고,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요같은 맥락으로 현애살수(懸崖撒手)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벼랑끝에서 움켜쥔 손을 놓으라는 말이다.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에게 한 말로도 유명하다. 이 말은 송나라 유명한 선시에 나오는 시구를 인용한 것인데 벼랑끝에서 손을 놓으라는 것은 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손에

를 채워 놓는다. 원송이는 구멍에 손을 넣고 땅콩을 움켜쥔다. 하지만 땅콩을 움켜쥔 그 손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예도 원송이는 땅콩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잡히게 된다고 한다. 상대에게 양보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요같은 맥락으로 현애살수(懸崖撒手)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벼랑끝에서 움켜쥔 손을 놓으라는 말이다. 김구 선생이 거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에게 한 말로도 유명하다. 이 말은 송나라 유명한 선시에 나오는 시구를 인용한 것인데 벼랑끝에서 손을 놓으라는 것은 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손에

를 채워 놓는다. 원송이는 구멍에 손을 넣고 땅콩을 움켜쥔다. 하지만 땅콩을 움켜쥔 그 손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예도 원송이는 땅콩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잡히게 된다고 한다. 상대에게 양보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